GRACE 선교소식

2024년 12월 GMI-GKC 선교사 현황: 62개국 341명 (자체 파송 74%)

2024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빅베어 수양관에서 GTD 206기(여자)를 인도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곳 빅베어 수양관의 날씨는 차가운 겨울을 느낄 만큼 쌀쌀합니다. 비록 눈은 볼 수 없었지만, 빅베어 소나무 숲에서 나오는 신선한 공기가 매우 상쾌하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팀 멤버 숙소로 사용하던 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지만, 120명의 팀 멤버들이 정말 열심히 섬기며 큰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항상 GTD를 인도하면서 주님께 감사한 것은, 이 사역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령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과 치유,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타주, 타교회, 한국과 다른 나라들에서도 GTD를 통해 받은 놀라운 은혜의 간증과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신청하며 아름다운 분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치유와 회복, 은사를 받았고, 무엇보다 복음을 확실히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팀 멤버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GMI 은혜교회 예배실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어 입당 감사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지하 상가에 예배실을 마련하면서 방음 문제를 포함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업체들을 예비하셔서 모든 것을 잘 해결하고 입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예배실이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건축헌금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GMI 은혜교회를 통해 큰 부흥이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적 모델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르메니아 Armenia

백승환 / 올가 선교사

겨울에 들어서면서 식량 및 땔감 보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주에는 감자 2천 킬로그램을 구입해 아르메니아 피난민 50여가정에 나눠줬고, 장작 땔감을 약 10가정에 배달해 줬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식량, 땔감 보조가 없으면 춥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 겨울 기간동안 매달 보조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장애 아동과 가족을 위한 러브캠프 12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마쳤습니다.

동터키 햄신지역에 12명이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삼손, 베네라 가정을 격려하고 내년도 교회개척과 햄신 뜨레스 디아스 준비를 위한 기도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내년 6월 동터키 햄신 뜨레스 디아스 렉터를 위해 기도 중입니다. 터키 선교에 마음이 있는 귀한 렉터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터키와 이란에 파송된 6유닛, 그리고 조만간 1유닛을 햄신지역으로 추가 파송하게 됩니다. 교회개척과 관련된 재정지원이 잘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영육간에 모든 것이 움추려드는 느낌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소망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장래의 꿈을 이뤄나갈 능력과 여건이 없어서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들을 도와주는 일에도 한계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에는 오직 예수만이 남겨진 유일한 소망입니다.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MI 총재: 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446-6200 gkcgmiusa@gmail.com

I국

이OO / 이OO 선교사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OO(Sam) 선교사가 무사히 치료를 받고 J도시로 복귀했습니다. 이OO 선교사가 지난 8월부터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 현지 병원을 가려다가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해, 지난 9월 14일에 한국에 나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관상동맥 90% 이상 막혀서 조금만 늦게 병원에 왔으면 큰일 날뻔했다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최종 진단은 협심증으로, 심장 스턴트를 2개 삽입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빨리 치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에 의료보험이 없었던 관계로, 첫번째 병원에서 치료비가 너무 비싸, 입원을 포기하고 4일을 기다린 후, 두번째 방문 병원에서 선교사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교회 목사님과와 섬겨주신 성도분들 덕분에 모든 병원비와 1년치 약값까지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에도 이곳 J도시 센터에서는 저희를 대신해서 EM에서 장기로 파송된 그레이스, 에스더 선교사님 그리고 1년 동안 선교로 헌신한 팀들이 샤밧디너와 보드게임 나잇을 지속적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던 안식일(샤밧) 디너를 시작한지 1주년이 됩니다. 처음 전통 종교 유대인 한명을 초대해 시작한 샤밧디너가 1년이 지난 지금은 10~23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점점 서로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팀멤버까지 최대 30명까지 모이고 있는데, 함께 협력하는 메시아닉 유대인 멤버를 통해 저희 사역이 ex-orthodox 커뮤니티에 소문이 나면서 안식일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 소문이 함께 나고 있지만, 또 몇몇 유대인은 우리가 ㅅㄱ사인것을 알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어, 하나님께 이 샤밧디너를 이끌고 계심을 느낍니다. 어제는 샤밧디너에 참석했던 자매 한명이 저희 인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센터에 방문하는 그들이 저희 센터를 'Sam & Jin 하우스' 라고 불렀는데 몇 달 전부터 정식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감동이 있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과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베이트 브라카: 축복의 집**'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샤밧디너 하시길 원해서 순종한 사역이였습니다. 베이트 브라카가 단순히 샤밧디만 섬기는 곳이 아닌 영원한 왕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한국에 가기 전부터 저는 군인들에게 제공되는 떼라피(therapy) 섹션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떼라피스트를 제차로 픽업해서 그들과 함께 I국

군인 베이스에 들어갑니다. 저는 떼라피 섹션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I국의 평안을 위해 그리고 군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끔은 바로 옆에서 로켓을 쏘는 위험한 지역에 가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I국 사람도 아닌데 그들이 왜 이런 봉사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I국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또한 I국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희 말을 들은 그들의 표정은 너무 놀라워합니다.

다음 주부터(11월) 다시 자원봉사를 시작합니다. 이번부터 '한방 부황기'도 가져가서 도우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요. 어떤 경우에는 가자(Gaza) 국경 근처까지 가서, 5시간 이상 운전하며, 밤 12시 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안전운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요. 또한 이 사역을 통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많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몰도바 Moldova

정석영 선교사

저는 지난 8월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며 동유럽 선교사 대회와 팀 리트릿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팀 리트릿은 팀원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팀웍을 다지며, 힐링과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9월부터는 10월에 기간이 만료되는 거주증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연초에 가입을 해야 하는 몰도바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잊어버려 가입을 하지 않아서 벌금이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안내를 받고 가입을 하였는데, 올해는 가입 안내를 못 받아 사역을 하다가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도바를 출국하였다가 이웃 나라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 들어와서 새로 거주증을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거주증을 새로 신청하게 되면 이전 거주증이 삭제되며 관련하여 발생한 벌금도 없어진다고 하여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벌금이 약 850달러(현지 통화 15,000lei) 정도로 큰 금액이었기에 출국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저런 사건 사고를 겪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무사히 거주증을 신청하였고, 현재는 신청한 거주증을 발급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0월에는 여름에 기부를 받았던 서랍장 등을 필요한 지역 교회에 배부하는 사역과 여전히 몰도바에 남아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푸드 박스를 나누는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 난민을 위한 푸드 박스는 약 1,200여개를 배포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심에 힘입어 별 탈 없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으며, 대학원 수업도 무사히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으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젠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이 힘들어하는 겨울을 나기 위한 겨울 준비를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Russia

주선민 / 손소미아 선교사

올여름 8월 중순에는 작년과 같이 사라토프라는 도시에 가서 한글학교 역사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진행하다 보니 아이들이 여름마다 캠프를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감사했고, 이제는 이 지역에 여름성경학교도 열리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러시아는 미성년자가 캠프나 기타 모임에 참가하려면 부모동의서도 받고 모임허가도 받아야 해서 까다로운데, 한글학교 역사캠프는 아이들이 직접 찾아오고 부모님들도 동의서를 쉽게 써 주셔서 아이들과 만나기 참 좋습니다. 귀한 캠프를 통해 아이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8월 마지막주에는 교회 식구들과 함께 볼가그라드에 가서 트레스디아즈를 섬겼습니다. 올해도 많은 지역에서 참가자들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 5월 세례받은 K자매와 R형제가 참가하기 위해 준비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못 가게 되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더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

고 비네르아저씨도 3년째 트레스디아즈에 가려고 준비하셨는데 이번에도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볼가그라드로 출발하기 전날 심하게 아프셨고 출발하는 당일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임을 느끼고 더 무장하고 기도합니다. 계속 이 땅과 사랑의 빛 교회 지체들을 위해 중보 부탁드립니다.

알리사 전도사님은 2달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름성경학교사역과 지방 도시를 돌며 어린이 사역을 잘 마치고 카잔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검문과 감시가 심해서 우즈벡전통의상을 입고 우즈벡어를 쓰면서 사역하다가 왔는데 최선을 다하며 섬기고 온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레기나자매는 우수리스크에서 청소년 사역과 통역사역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더욱 귀히 세워져 가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에는 카잔볼가한글학교가 새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한글사역을 통해 교회에 방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10월 초에는 카잔에서 600km정도 떨어진 즈바나레브카교회에서 고려인성도님들이 카잔으로 수련회를 오셨습니다. 계시는 동안 낮에는 관광을 하시고 저녁에는 부흥회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분들도 저녁마다 함께 부흥회에 참가하고 서로 교제하며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월 말에는 모스크바 은혜신학교에 방문했습니다. 구소련지역 1000개 교회 개척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훈련받는 신학생들과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학장님을 보며 함께 기도하며 섬긴다는 것에 참 은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큰 아들 세계가 신학교 35기로 36명의 신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세계와 신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귀한 일꾼으로 자라길 소망하며, 구소련지역 1000개 교회 개척을 위해 매일 함께 기도해 주세요. 11월부터 카잔대학교 강의도 시작합니다. 성실하게 지혜롭게 잘 사역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12월에는 성탄 초청예배, 1월 신년성경 읽기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가운데 성령충만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영을 살리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기도제목에 차수리에 관해 기도 부탁드렸었는데 2달이 걸렸지만 차를 잘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문을 구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고쳤습니다.

올여름 7월에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에 참석하기위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건강검진을 하던 중 갑상선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갑상선의 일부를 제거해서 앞으로 약을 계속 먹어야 하고 5년간은 추적관찰을 해야 하는데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아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지난 5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이번 12월 12일 다리에 달고 있던 기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남은 수술과 재활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계는 모스크바 은혜신학교에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며 자신의 비전과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둘째 세라도 10학년에 진학하였습니다.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잘 극복하고 앞으로의 진로 가운데도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N국

김OO / 오OO 선교사

한국 이단들이 병원이란 명목으로 건물을 짓고 의료활동은 하지 않고 종교활동만 하다가 경찰들의 압수수색을 받고 이단들은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사람이란걸 알고 저를 찾아 조사하려고 제가 다니는 교회까지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덩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사역도 올해는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학장의 말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지냈지요.
그런데 갑자기 은행거래가 끊겼습니다. 제가 이단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 거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은행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단 문제로 인해 생겨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좌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변호사와 서류를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도제목

1. SPBA 바이블 칼리지를 위해
2. 은행 거래가 열릴 수 있도록
3. 저의 한국 집 이사가는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4. 영적으로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5. 아내 오OO 선교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Ukraine

김교역 / 김주순 선교사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려퍼지는 경보싸이렌 소리는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길에서 마주치는 얼굴들에는 기쁨이 사라진지 오래고, 우울한 모습들과 전에는 없던 정신이상자들은 쉽게 눈에 띕니다. 이런 상황가운데도 어느덧 시간은 알게 모르게 지나고 또 추위가 몰려와서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따뜻한 곳들을 찾게 합니다. 그러나 여건이 허락지를 않아서 따뜻한 몸의 온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만도 너무 벅차고 어려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경이나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통하여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계속 무료 식당에서 따뜻한 한끼라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식당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들려주고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참 소망가운데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젠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소문을 듣고 식당을 찾아오는 새로운 분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육적인 배부름뿐 아니고, 복음으로 소망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음식을 제공하다가도 중간 중간에 급하게 바삐 더 만들어, 한 사람이라도 그냥 되돌아서 가는 이가 없도록 각자의 자리를 지켜 주는 섬김이들, 바삐 움직이다가도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잔잔하게 말로는 일일이 표현은 못해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봉사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이면 예배를 드리고, 깜깜한 어두움을 헤치고 달려와서 함께 음식을 구입하여, 준비하고 피곤도 뒤로하고 섬기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귀한 시간들이 기적입니다.

운전 중에도, 가까이에서 또는 멀리서 밤낮없이 펑펑 드론을 격추하고 라켓의 터지는 소리들은 어느덧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살 수 없음을 매시간, 분초마다 고백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뒤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저희 우크라이나와 부족한 저희 선교사들과 또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의 기도의 응답임을 믿고 감사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3년 전 전쟁이 시작되고 기숙을 함께하던 신학생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학교에 적을 둔 재학생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 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미 여러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먼저 주님께로 간 자들도 있고, 다리를 다쳐서 되돌아 온 분들도 있습니다.

남동쪽에 우크라이나 군인에게 밀려서 후퇴한 러시아 군인들이 주둔해 있던 마을들을 찾아가 보면 그야말로 처참하다는 말뿐이 다른 단어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헤르손 지역의 강 다리를 중심으로 한 쪽은 러시아 군인들이 주둔하고 한 쪽은 우크라이나 군인이 점령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군인이 후퇴하면서 모든 큰 마켓이나 작은 구멍 가게까지 모두 다 태우고 망가트리고 후퇴하여 음식을 파는 곳도 또 살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봐도 답답하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전쟁 지역에는 미처 피난도 가지를 못하고 머물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올겨울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땔감 나무와 혹은 석탄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헤르손 지역에서 가까운 주문지를 찾아서 일단 주문을 했습니다. 올 겨울을 그래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땔나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또한 그동안 계속 공사를 해 오던 지붕 고쳐주는 사역도 계속 지붕 재료들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일단 1차로 33가정에 장작과 석탄 등을 구입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2차로 50가정을 더 주문을 받고, 땔감이 구입되는 대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 사역으로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고, 절망가운데 헤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천국 소망이 전해지기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도울 대상자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과부가 된 분들, 또 연세가 드셔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중심으로 먼저 그들을 돕고자합니다.

전쟁 중에 구입해 준 센터 건물에서는 꾸준하게 무료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려고 왔다가 매일 들려주는 복음으로 기도로 이들의 삶에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어엿한 성도로써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한 형제 자매로서, 나라와 민족, 이웃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C국

조OO / 윤OO 선교사

최근 저의 신변에는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현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병행하면서 학생의 신분을 누려왔는데 이제 졸업을 하였습니다. 현지 대학에 일자리를 얻으면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 부득이 잠시 귀국하

여 한숨 돌리며 세밀한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현재는 대학가 앞에 작은 한식당을 열어 비자문제를 해결하고 BAM 사업의 길을 열고자 하는데 준비할 것과 극복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유스 D스쿨은 재정적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신실한 킹덤사업자들을 지속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유학생 D훈련은 보안상 문제로 잠시 멈췄으며 내년 봄 다시 안전한 장소를 찾아 재개할 예정입니다. 지역 단체 내에 세션팀을 구축하는 사업은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교사와 악기 등 자원의 한계로 두음이 절박한 두 곳의 요청에만 대응할 예정입니다. 강력한 응원과 지원 부탁합니다.

I국

한OO / 손OO 선교사

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LA 은혜 ㄱ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비자 연장 신청을 하였는데 푸OFRRO(출입국 사무 경찰서)에서는 이야기가 잘 되서 통과되었는데 뭄OO FRRO에서 계속해서 비자를 연장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권이 몇 년 전에 뭄OO FRRO로 이관되었습니다. 급기야 뭄OO FRRO로 11월 27일에 저를 초청해주신 회사 대표와 방문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방문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잘못하면 블랙 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블랙 리스트에 올라가서 입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회사 대표님도 함께 가는 것은 안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EXIT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한국에 가서 새 비자를 신청하는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하게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롭게 따라가며, 앞으로 장기 비자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브라질 Brazil

한인승 / 한선희 선교사

이곳 브라질 Espirito Santo에서는 11월 8일~10일까지 영성 훈련인 Grace Camp가 있었습니다. 생각같이 많은 사람은 모이지 못했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충만했습니다. 저희 내외는 기도의 영성이 부족한 이곳에 성령의 역사를 소원하며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는 결혼식이 있어서 중요한 멤버들이 참석하지 못하였고 두 교회는 교회의 행사로 인해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도 많이 빠지고 물건 구입에도 많은 차질을 겪게 되었고 말씀을 맡은 분도 겨우 말씀만 전하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집회를 진행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달 전쯤에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한번은 작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가 꼭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어떤 어항이 보이는데 좀 어둡더니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점점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이 깨끗한 바닷가 모래가 보이더니 물도 깨끗해지고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역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 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더 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국

강OO / 현OO 선교사

모든 헌금은 대부분 한센환우를 위한 쌀과 밀가루, 식용유, 의약품, 생필품 등을 공급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한센환우를 섬기기만 했고 지금은 복ㅇ을 증거하자 무슬림 힌두교 기타지역 대표들이 예ㅅ님을 믿겠다고 해서 각지역 가까운 교ㅎ를 연결하고 성ㄱ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각 지역 대표들을 통하여 모든 한센환우들이 예ㅅ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두손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C국 후임자가 11월 15일부터 많은 의약품을 가지고 와서 2주간 같이 동역합니다. 이쪽 의약품이 부실한 편입니다. C국과 B국 한센환우와 동역자를 위하여 두손모아 주세요.

지난 5월에 목ㅅ 안수를 받아 많은 짐을 지어주셨는데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손모아 주세요.

은혜한인ㄱㅎ와 권ㅅ회 모든 분들을 어디에서 만날지 천국인지 이 땅인지 모르지만 만나면 기쁨과 눈물로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안기를 두손모아 봅니다. 매우 부족한 저를 위하여 두손모아 주시고 헌ㄱ하여 주셔서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베네수엘라 Venezuela

김도현 / 강미애 선교사

콜롬비아 2기 대학생 사랑의 불꽃

지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김황신 목사님을 스피리처 리더로, 제임스 강 집사님을 렉터로 모시고 콜롬비아 2기 대학생 사랑의 불꽃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쳤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79명의 캔디데이트들이 참석하여 함께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팀멤버로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미국은혜교회 EM이 함께 하나 되어 섬기었는데 특별히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EM 단기 선교사들이 먼 거리 비행기를 타고 콜롬비아까지 와서 섬겨준 모습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79명의 학생들 중에 50여명 이상이 선교사와 목회자로 삶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은혜 받은 대학생, 리더들을 통해 콜롬비아 여러 도시에서 대학생 사역과 전도사역을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위해서 강력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네수엘라 신학교와 졸업식

10월 셋째 주에는 115 여명의 4, 5기 목사님들을 모시고 신학교 모임을 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슐라 선교사가 창조론과 창조과학을 강의했습니다. 슐라 선교사의 신학교 첫 강의 인데도 너무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안그래도 강사 구하기 어려운 이 나라 상황에서 새 강사가 생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년간, 치열한 사역현장에서 순종하고 또 이 먼 곳까지 오가며 모든 일정을 마친 59명의 신학교 4기 목회자가 졸업했습니다. 이 어려운 나라의 상황에서 꿋꿋이 순종하며 모든 여정을 마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신실하게 베네수엘라 신학교를 위해서 귀한 헌금과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은혜한인교회와 강사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졸업을 너무나 아쉬워하며 눈물로 마지막 수업에 참여하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만감이 교차합니다. 졸업 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2차 합숙 및 졸업식

9월에 시작된 대학생 리더쉽 스쿨 5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간 각 도시에서 전도실습을 마치고 선교센터로 돌아와 11월 1일부터 마지막 한달 합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으로 시작되어 새벽기도, 큐티, 말씀암송, 강의, 중보기도, 집회, 침묵시간까지 빡빡한 일정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교회나 다른 일정으로 바빠서 한 달간 센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도, 엘리야 선교사가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학생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이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 한 달간 엄청난 은혜를 받아 변화받고, 10월에 전도를 경험한 모든 학생들이 남은 한 달도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총 71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는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을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이 학생들을 통해 주님께서 이 나라에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 이야기

예림이는 9월부터 베네수엘라의 한 사립대학교에 입학을 하여 새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로 데려다 주던 고등학교와 다르게 이제는 새벽 5시 30분에 나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학교를 다니며 인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친구들을 사귀며 친구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림이가 하나님도 만나고 선교사의 비전도 받아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 하나씩 순종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길 기도합니다. 아들 예준이는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계속 이어지는 여러 사역들로 인해 피곤해서 몸이 조금 힘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올해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아도나이 현지인 교회는 52 은혜의 만남(인카운터)가 5주간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모두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갑니다. 내년 계획을 짜는데,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올해 한해도 잘 마무리되도록 은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에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에도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동역자님들의 중보기도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주세요.

보스니아 Bosnia

신운영 선교사

사라예보에서 제니짜로 간지가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제니짜로 이사오는 그날부터 살림살이를 장만해야 했습니다. 10평이 안되는 공간에 침대, 냉장고,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것 하나하나 구입하는데 한 2주가 소요된 것 같네요. 여기 현지인이 아니기에 아직도 인터넷이 집에 설치가 안되어서 불편하지만 그러나 집주인의 도움으로 이번 11월이 끝가기 전에 인터넷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입주자들이 다 입주가 되어야 중앙난방이 가동된다고 하기에 히터도 설치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집에서는 늘 옷을 춥지 않을 정도로 껴 입어야 하는 상황이며 잘 때는 모자와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추울 것을 예상해서 전기히터를 사주었지만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감사한 것은 보일러로 인해서 따뜻한 물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월 초부터 메케한 공기가 도시 전체를 둘러싸서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과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장작으로 난방을 하는 가정들과 아파트 그리고 구릉지에 위치하기에 안좋은 공기가 빠져 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최악의 공기 오염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하루 빨리 적응하는 것 밖에 도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가 유고슬라비아 연방이었기에 아직도 사회주의 잔재가 남아 있는데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외국인등록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비자수속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첫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사라예보에서 살았던 집주인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아서 벌금을 물고 이곳 제니짜에서 집주인과 다리오 목사님과 함께 공증을 해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자 수속 절차를 아직도 준비 중입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서를 받고 보험을 들어야 하며 또한 현재 제가 여기 보스니아에 살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자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경찰이 제가 사는 곳에 와서 실제로 사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현지 목사님(다리오카핀)과 따님(룻)의 도움으로 하나씩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곳 보스니아에서는 18세 이상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18세 이하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부모님이 함께 교회에 나와야만 합니다.

이곳 제니짜는 이슬람성도가 95% 이상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슬람회교도 사원으로 가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지만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총 인원은 7명 정도. 다리오 목사님 가정과 저 그리고 현지인 2명입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지 어떻게 접촉점을 가져야 할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봅니다. 아직은 언어도 안되고 보스니아의 문화도 익숙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멀다고 느껴질 지 몰라도 그래도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란 말뜻을 실감합니다.

기도제목

1 . 비자수속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2.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지인과의 접촉점을 찾도록
3. 지혜를 주시길
4. 언어와 문화를 잘 익힐 수 있도록

탄자니아 Tanzania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드디어 저희 가족이 오는 12월 19일 탄자니아로 출국하여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준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앞으로의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저희는 지역 전도와 현지 목회자 협력 사역,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 사역,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현지 주민들에게 복음이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딸 이음이의 건강 문제로 인해 내년 3월 5일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4월 7일에 예정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의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병원을 연결해 주시고 모든 일정을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수술 전까지 이음이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12월 19일 탄자니아 출국 준비와 여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현지에서의 정착(언어, 문화)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2. 저희 가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강건하게 지내며, 이음이가 수술 전까지 안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3.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온전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4. 이음이의 수술이 2025년 4월 7일에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회복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필요한 치료와 돌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Argentina

유성두 / 강지애 선교사

몇 년 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많이 사색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게 다가왔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기대와 소망으로 굳게 믿고 갔다가 들려오는 소식은 암울하고 점점 안좋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우리의 기다림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해야 했고 흔들리는 마음도 다시 다 잡아야 했습니다. 이런 믿음과 실망의 싸움을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매 순간 우리 부부가 바닥까지 떨어지려 할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항상 역전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도 지혜로도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 찬양과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고백과 간증을 두 손 꼬옥 잡고 마음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임상실험이 끝나자마자 투여한 신약 항암제 엔허투를 9월 3일을 마지막으로 더 투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폐와 간에 전이된 암덩어리들이 오랜 시간 동안 변화가 없어서 투여량을 줄이고 한 달에 한 번씩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효과가 없으니 현상 유지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를 위해 항암제 투여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계속 경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항암 작용을 못하는 항암제를 투여해서 몸만 축나고 약해지게 하는 것은 더욱 기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투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뇌 사진을 보니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콩 크기의 암덩어리들이 있었고 미세하게 작은 암덩어리들도 여러 개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교수를 만나 치료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11월 26일, 27일 입원해서 방사선 치료로 뇌에 있는 암덩어리들을 집중해서 몇 시간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예멘에서 20년간 의료선교하신 원장님이 치료하시는 병원에서 비타민 강화 투여, 고주파 온열 치료, 면역세포강화 치료 등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선교와 외국 근로자를 섬기는 교회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루트와 싸인으로 막으셨고 강선교사의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매주 2번에서 많게는 5번을 가서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동안 저희 아버님과 큰누나네, 작은누나네, 형네 식구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 더욱 복음 전하고 중보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

1. 또다시 전이가 되었지만 포기의 순간을 짧게 해주시고 잠잠히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을 유지하도록 인도해주신 것입니다.

2. 고난으로 자신의 아둔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3. 삶이 힘들어 눈물 나는 것보다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오는 절망감의 무게가 더 크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4. 당연한 것들에 대해 더 감사할 줄 아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도록 인도해주신 것입니다.

5. 제가 연약해서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다시 재확인해주신 것입니다.

6. 주변 환경이 기도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쁨임을 깨닫아 아는 자리까지 인도해주신 것입니다.

7. 병원과 주사바늘에 대한 PTSD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입니다.

8. 아직 어린 두 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9. 재정적인 압박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거의 마지막에서야 놀라운 은혜를 체휼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T국

최OO 선교사

훈련생들과 함께 아프카니스탄 국경에 사역을 갔다가 아프카니스탄 국경에서 가까운 도시에 개척된 까하자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까하자밭 교회는 아프카니스탄 사역을 다니며 아프카니스탄 국경주변 십여개 도시에 교회를 개척할 계획을 가지고 국경의 쎈타교회로 개척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짧은 시간에 수십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이 나라의 종교와 문화환경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집요한 공격은 계속되어져 사역자들이 사단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까하자밭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명의 사역자가 떠나갔습니다. 까하자밭 교회에 갔을 때 교회 성도가 울먹이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사역할 사역자를 보내주세요.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흩어진 성도들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 울먹이는 성도의 말을 듣는 선교사의 마음도 찢어지듯 무척 괴로웠습니다. 선교사의 환경도 힘이 들지만 맡겨진 귀중한 영혼들을 방치할 수 없어 이번에 6번째 사역자를 다시 까하자밭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주셨던 비전인 국경근처에 10여개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쎈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6번째 사역자가 끝까지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요.

저희가 아랍사역으로 중동으로 가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동안 준비해 온 터키사역입니다. 4년 전에 터키에 갔을때 주님은 터키에 있는 뚤크메니스탄 난민 사역을 하라고 뚤크메니스탄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환경에 터키사역이 쉽지 않으므로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령님은 이번에 다시 아프카니스탄 난민들을 보여주시며 터키사역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터키에 있는 이란사람 · 아프카니스탄사람 · 툴크메니스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환경이 연약한 선교사이다보니 사역을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터키의 아프카니스탄과 이란, 뚤크메니스탄의 영혼들 구원을 위한 난민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요.

간증문
AFA 2기

G18 / 정아름 집사

저는 GTD 200기 하태(하나님을 사랑해서 태평양을 건너온 자매들) 테이블, 18그룹을 섬기고 있는 정아름 집사입니다. 이번 El Salvador AFA 2기 선교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참으로 기쁩니다.

약 1년 전쯤 목녀님께서 가을에 있을 El Salvador AFA 선교에 함께 가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는 제안을 하셨을 때 제 마음에 작은 불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선교가 진행되는 기간 중 제 생일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일 선물로 받으면 더 없이 좋겠다는 소망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가능할까 싶은 반신반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몇 개월에 걸쳐 신앙이 어린 남편을 조금씩 설득해 나갔습니다. 3학년 딸을 남편이 일하면서 혼자 케어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기에 선교에 대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남편이 허락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에게 주는 생일 선물로 엘살바도르 행을 허락해 주는 남편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45명의 미국팀 멤버가 각팀으로 배정받아 나뉘어졌고, 전 데코팀으로 배정받아 캔디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데코레이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설레임을 안고 도착해서 캔디들을 맞이하며 처음 만나는 자리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지체로 서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며 행복한 시간을 누렸고, 예수님의 살

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서는 큰 소리로 주님을 외치며 울며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령체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족식을 통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고, 긴장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저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제가 발을 씻겨주었던 그 자매가 사랑스럽게만 보였고 멈추지 않는 감사의 눈물만 흘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가 큰 만큼 영적공격 또한 많았습니다. 저의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으로 인해 제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TD사역이나 선교의 경험이 많은 다른 믿음의 선배님들과 다르게 이 팀안에서 저는 나약한 새끼 손가락 같았습니다. 이 팀에 내가 없는 것이 더 나을텐데... 느리고, 상황파악도 못하는 것 같고 프로그램 이름조차 낯설어 하는 저 자신이 오히려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 의기소침하고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만큼 이 선교팀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 낙심이 되어 그룹에서 빠져나와 스스로를 소외시키며 낙오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AFA 사역이 다 끝난 후 그 다음날 아침 그레스타임 때 안영식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의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는 말씀이 저의 마음을 울리며, 아름다운 나무들은 다 잘려나가 경복궁의 아름다운 문으로 사용되지만 못생긴 나무는 산을 지킨다는 말에 깊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중 말씀하셨습니다. 넌 너를 쓸모없는 새끼손가락이라고 하지만 내가 너를 이 한 몸된 지체중에서 눈의 시신경으로 만들었다면? 심장의 근육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몸의 일부분 중 중요한 지체가 아닌 것 같은, 아니 때로는 없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저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제가 쉽게 눈에 띄진 않지만 너무 중요한 눈의 시신경, 심장의 근육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일을, 세우신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지는 않지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못생긴 나무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우리 팀에서 일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주눅도 든데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저의 성격때문에 조용히 생일을 지나고 싶었지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저의 생일을 알게 되어 같이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전 제 생일을 미워했지만 하나님께선 모든 사람들에게 저의 생일을 알리시며 축복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함께 하는 지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저는 나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영성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리며 믿음의 행동을 취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선하신 주권을 사용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믿음의 지체분들과 제 인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De Colores!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1분단상 134-12월호>
- 김대규 장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매일 실현해야 하는 삶은 무엇일까? 바로 "거룩"이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어 살라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6일동안 만물을 지으시고 제일 처음으로 7째 날을 구분하시어 "카도쉬(Kadosh, 거룩)"라고 구분하여 안식을 취하시며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 주셨다. 또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발에서 신을 벗으라(출3:5)"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옛사람과 더러운 것을 버리고 구분되어야 함을 지시하셨다. 더 나아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한다(레19:2, 벧전1:15,16)"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렇게 창세 때는 물론 신, 구약에서 가장 먼저 쓰인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을 거론한 것을 보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는 전혀 선택권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악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여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로 우리는 거룩한 자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한 부분이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신과 삶의 전반에 걸쳐 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결코 추상적인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에 대하여 얼마나 심도 있게 알고 추구해 왔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 올 한해도 마감할 시기가 왔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 다가갔는지? 우리는 원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진리 곧 말씀만이 저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요17:17)."라고 분명하게 말씀한다. 그렇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아가 악과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자로 보존되는 것이 거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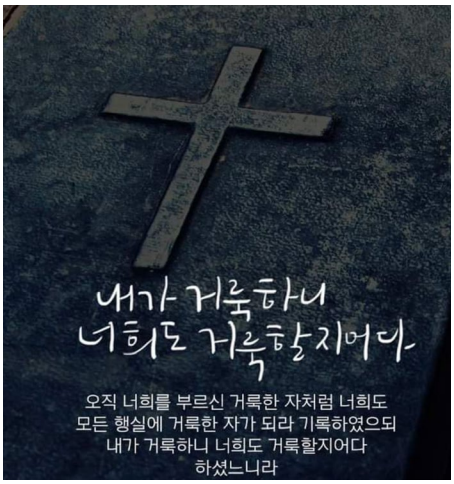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레위기 19장 1-18절과 베드로전서 1장 13-25절에 함축성있게 기록되어 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수직적)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정결함과 하나 되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상숭배을 하지 말고 진실되이 섬기며, 거짓맹세를 말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사람과의 관계(수평적)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며, 약자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정직하며, 공의를 지키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과 소망, 이웃 사랑과 헌신을 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

거룩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온전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붙잡고 매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악과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살전5:16-18)이 바로 거룩의 모습이다. 이는 우리의 모든 것 곧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와도 같다(롬12:1, 2).

하나님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라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내 것이 되게 하였음이라"(레20:26)고 하셨다.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하나님 안에 나의 주 예수님이, 나의 주안에 내가, 내안에 나의 주가 항상 함께 있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가지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의 노릇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끌어 주시는데 이러한 은혜에 화답하여 올 한해를 거룩해지도록 감사속에서 진정으로 얼마나 몸부림쳐 왔는가를 꼽아 보아야 한다. 아니 우리는 오히려 다른 것에 몰두했었는지를 뒤돌아보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거룩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를 놓쳐서는 아니된다.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해져 있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I국 이OO / 이OO 선교사

1. 저희 부부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요. 이OO 선교사의 협심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2. 베이트 브라카(센터)에 오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3. 함께 동역하고 있는 메시아닉 형제 자매들과 중장기 EM형제 자매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4. I국 군인사역과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는 유대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5. 2025년 영어/히브리어권 TD를 위해
6. I국에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러시아 주선민 / 손소미아 선교사

1. 러우전쟁이 빨리 종식되어 평화가 찾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2. 카잔 사랑의 빛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고 모두가 제자를 삼는 삶을 살도록
3. 초청되어 오는 청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TD까지 잘 연결되도록
4. 사랑의 빛교회와 카잔볼가한글학교 사역을 위한 모임 장소가 잘 준비되어 지도록
5. GMI구소련 1000개교회 개척을 위해
6. 주선민 선교사의 암치료와 막내 세아의 다리가 잘 치료되도록 (12월 12일 수술도 잘 되도록)

C국 조OO / 윤OO 선교사

1. 유스D스쿨을 통해 킹덤사업의 일꾼들이 지속 배출되도록
2. 유학생 D훈련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속히 확정되도록
3. 세션팀의 훈련생들이 잘 꾸려지고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4. 구상 중인 한식당 사업이 건강한 BAM 모델로 잘 준비되도록
5. 부모님의 건강,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이 영육간 강건하도록

브라질 한인승 / 한선희 선교사

1. 제자 양육이 계속 잘 진행이 되도록
2. 25년도 5월 AFA가 은혜가운데 잘 진행이 되도록
3. 25년도 11월 영성 훈련 Grace Camp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4. 25년도 3월 중남미 선교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5. 브라질에 성령의 폭팔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6. 저희 내외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도록

N국 하OO 오 선교사

1. 2025년 1월에 시작하는 GG (Grace Gospel) 3기 줌 클래스
2. GG program 을 시작하는 교회들의 성장
3. GG 2단계 코스 (QT, Leadership Training, GE, GF) 준비와 시작
4. 2025년 B국 비전 트립
5. Heaven's Melody Nepal 청소년 음악, 전도훈련 사역
6. 2025년 가을 비신자 초청 Grace Festival

아르헨티나 유성두 / 강지애 선교사

1. 모든 일에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2.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실수와 잘못을 계속 줄여 나가도록
3.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4. 무너진 세계 각 교회와 성도가 다시금 부흥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5.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부부의 선교 사역 두 번째 텀이 잘 진행되도록
6. 하나님 안에서 아내의 치료가 완쾌되고 치료의 부작용(손가락, 발가락 어깨 등의 뼈마디 통증, 울렁거림, 피부질환, 어지럼증, 불면증)이 사라지도록
7. 아버지, 큰누나네, 작은누나네, 형네 모든 식구들 구원받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8. 다연, 호연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9. 다연(중1)의 아래턱의 틱장애가 없어지고 턱의 위치가 온전하게 되도록
10. 호연(초6)이 자주 배 아프고 감기 걸리는 것이 없이 건강하도록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몰도바 정석영 선교사

1.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2. 언어(루마니아어, 영어)를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3. 대학원 수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재정을 채워주시기를
4.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곧 보내주시도록
5. 비자의 어려움 없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6. 저와 어머니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최근에 제가 엉덩이 뼈에 통증이 발생하여 며칠을 고생하다가 통증 완화를 위한 운동 방법을 찾아 지금은 운동을 통해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I국 강OO / 현OO 선교사

1. 한센환우 각 지역 대표들을 통하여 모든 한센환우들이 예ㅅ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2. B국과 C국의 한센환우와 동역자들이 힘들지만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3. 지난 5월에 목ㅅ 안수를 받아 많은 짐을 지어 주셨는데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4. 부족한 저를 위하여 두손모아 주시고 헌ㄱ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미국 나바호 인디언 성탄절 행사 (12/12-12/14)**
  문의: 서혜란 권사 (714-496-6922)
  장소: 애리조나주 모뉴먼트밸리
- **인도GIGL 9기**
  OT: 12/17(화) 6:30pm, 장소: VC205B
  S/L: 한기홍 목사
  렉터: 현윤호 집사
  문의: 전재우 집사 (562-644-2128)
- **페루 청년 AFA 20기 (1/27-2/2/2025)**
  S/L: 안영식 목사
  렉터: 스카이 박 집사 (951-203-7937)
- **ElSalvador GE3기 (1/29-2/2/2025)**
  S/L: 권상욱 목사
  렉터: 모정준 집사
  OT: 12/29(목) 7pm, 새가족실
  문의: 송영준 집사 (714-213-5006)
- **CUBA AFA 10기(2/2-2/8/2025) TD, 신학교입학식, 교회방문**
  S/L: 한기홍 목사
  렉터: 케빈 김 집사
  문의: 로이 김 집사 (213-999-1737)
- **GMI 중남미 컨퍼런스 (3/24-3/27/2025)**
  OT: 12/16 (월) 7pm
  장소: 웨딩채플
  문의: 정민 집사 (714-900-4194)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쥬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GMIMISSION

WWW.**FACEBOOK**.COM/GMIMISSION